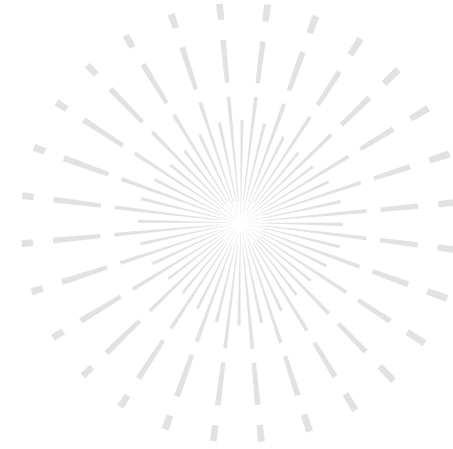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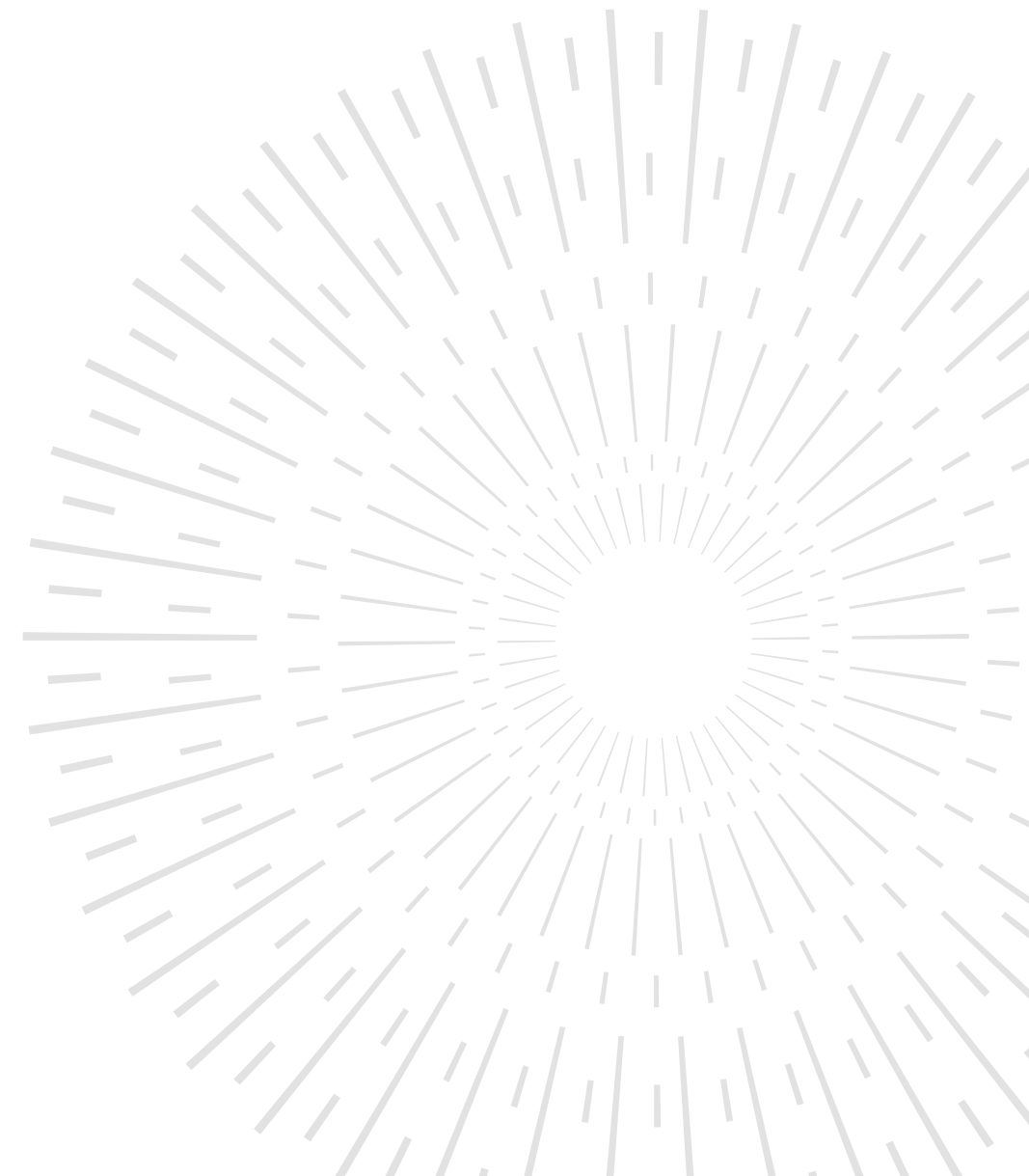


2019년도  
**KSP 연차보고서**



2019년도  
**KSP 연차보고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지식공유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기회를 모색하여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에 기여합니다.

「2019년도 KSP 연차보고서」는 2019년에 종료된 2018/19 KSP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KSP는 통상 두 개 연도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b>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b>	사업 개요	04
	주요 연혁	06
	협력국 및 협력기관	08
	연도별 사업현황	10
<b>2018/19년도 KSP 추진 현황</b>	사업 기획	14
	주요 사업 - 케냐	16
	루마니아	20
	세르비아	24
	인도네시아	28
	볼리비아	32
	성과 확산	36
	KSP 사업 소식(2018/19년)	42
<b>부록</b>	2018/19년도 KSP 사업 목록	48
	KSP 주요 성과	5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은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지식공유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기회를 모색해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PROGRAM OVERVIEW






### 사업 개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은 지난 70년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나아가 경제협력 기회를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지식공유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84개국을 대상으로 1,200개 이상의 주제에 대해 정책자문을 제공해왔다. 한국개발연구원(경제발전, 정책연구)과 한국수출입은행(인프라 개발, EDCF 연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민간기업 연계)가 각각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총괄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KSP는 협력대상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모색하고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고도성장기 한국의 정책 추진 경험을 일방적으로 소개하기보다는 각국의 경제사회 환경을 진단하고, 그에 걸맞은 최적의 대안을 공동으로 찾아내는 협력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 제안의 적합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효과적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개발도상국 정부와 민간의 역량(capacity)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도국 입장에서도 경제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시행착오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평가를 받아왔다.

나아가 KSP는 우리 정부의 대외 경제정책 및 외교정책과 연계해 양국이 호혜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협력관계(파트너십)를 만들어가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협력국의 정책과 제도, 시장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KSP를 계기로 양국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교역 조건과 투자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식공유와 경제협력 간 선순환을 지향한다.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체제에서는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투자의 중요성이 폭넓게 인식되고 있으며, 공공재원 투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자국에 이익이 되는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KSP는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헝가리, 칠레, 멕시코 등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G20 회원국과도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해왔다.

KSP는 발전 단계가 서로 다른 각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무역, 과학기술, 거시경제 및 금융, 행정, 재정, 국토개발, 인적자원개발, 환경, 농촌개발, 경제개발계획, 보건·복지, 노동시장, 문화·관광 등 경제·사회·공공 부문을 아우르는 포괄적 자문사업을 추진해왔다. 국제사회의 협력 수요와 한국의 비교 우위, 협력국의 발전 단계를 고려해 사업을 선정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 정책 솔루션을 제안하며, 정책자문과 역량강화연수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 정책 변화를 지원하고 있다. KSP는 사업 방식에 따라 한국과 협력국 정부 간(G2G) 사업인 양자 정책자문사업과 KSP 사업에 다자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의 기술협력사업을 연계해 삼각협력 방식으로 지원하는 국제기구 공동 컨설팅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CHARACTERISTICS	
	<b>Demand-driven</b> 협력국의 수요에 기반하여 사업추진
	<b>Comprehensive</b> 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연계된 정책분야 및 이해관계자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사업추진
	<b>Mutual learning</b> 일방적인 지식전달이 아닌 상호학습을 바탕으로 명시적(explicit), 암묵적(tacit) 지식의 공유
	<b>Best matches</b> 협력국의 발전제약 및 집행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가능한 정책대안 제시
	<b>Capacity to act</b> 정책의 개선, 후속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공유된 지식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은 국제사회의 수요와 호평에 힘입어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했으며,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결과를 높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정책자문 내용이 협력국의 제도를 개선하고, 후속사업으로 연계되어 실질적인 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KSP HISTORY

## 주요 연혁

• 양자 정책자문사업 시작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 KSP 협력지역 확대 (자원 부국, 신흥국 등)

• KSP, 국가브랜드 사업 선정 (한국과 함께하는 경제발전)  
• 도미니카공화국 배전망 현대화사업 (IDB) 연계 및 국내 기업 수주

• 발전경험 모듈화사업 시작 (2010-2015년, 148건 수행)  
•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가입  
• 정책자문관 파견제도 도입  
• 지역별 세미나 도입  
• 한-WB KSP 지식공유 포럼



•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채택  
• 「KSP 10년사」 발간  
• 다자 협의체 대상 정책자문사업 시작(비세그라드그룹)  
• 미얀마 개발연구원 설립사업 (KOICA) 연계  
• 니카라과 브로드밴드 구축사업(EDCF-IDB 협조용자) 연계

• 멕시코 산학협력센터 설립  
• UAE 특허 시스템 구축사업 연계 및 국내 기업 수주

•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사업연계



• 성과 공유 컨퍼런스 도입  
• 베트남 수출신용기구 설립  
•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경제특구 설립



• 공동컨설팅사업 시작 (WB, ADB, IDB, UN-APCICT)  
• 수석고문제도 도입  
• 'KSP 발전 방안' 발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베트남 2011-2020 경제사회 발전 전략 채택

• 분야별 추진 체계 개편 (경제, 산업·무역, 건설·인프라)

• 시스템 컨설팅사업 시작 (2013-2016년, 25건 수행)  
• OECD 지식공유연대(KSA) 출범

• '글로벌지식협력단지(GKEDC)' 개관  
• 케냐 지능형 교통 체계 개선사업(EDCF)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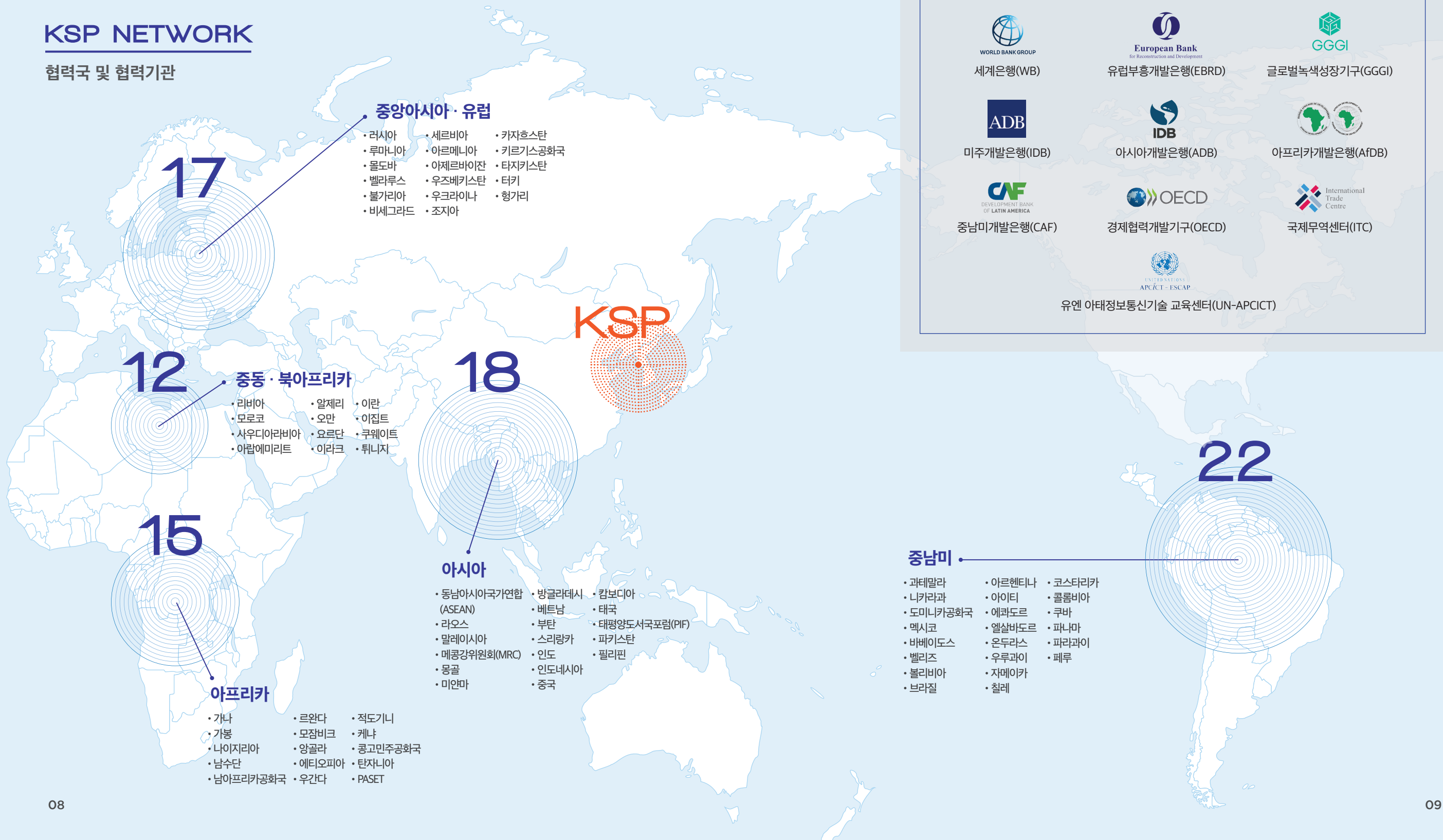
• KSP 2.0 발전 방안 발표 (대외경제장관회의, 신흥국 경제협력 지원)  
•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 설립사업(KOICA) 연계

•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출범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2004년에 시작된 KSP는 2019년까지 84개 협력국 10개 국제기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지식공유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습니다.

## KSP NETWORK

### 협력국 및 협력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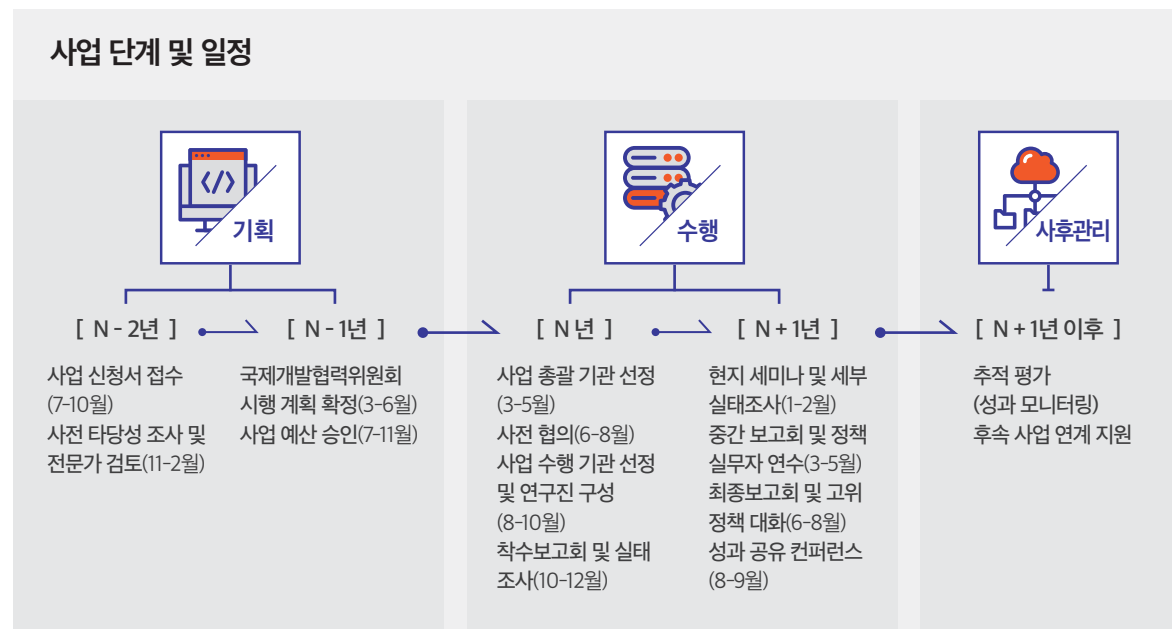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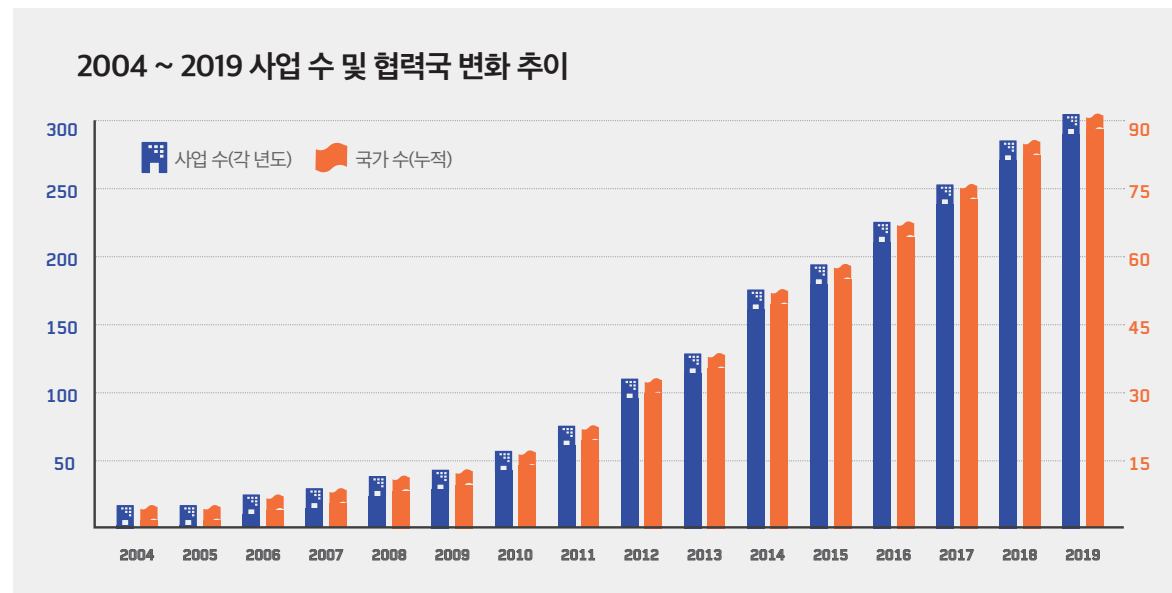


KSP는 협력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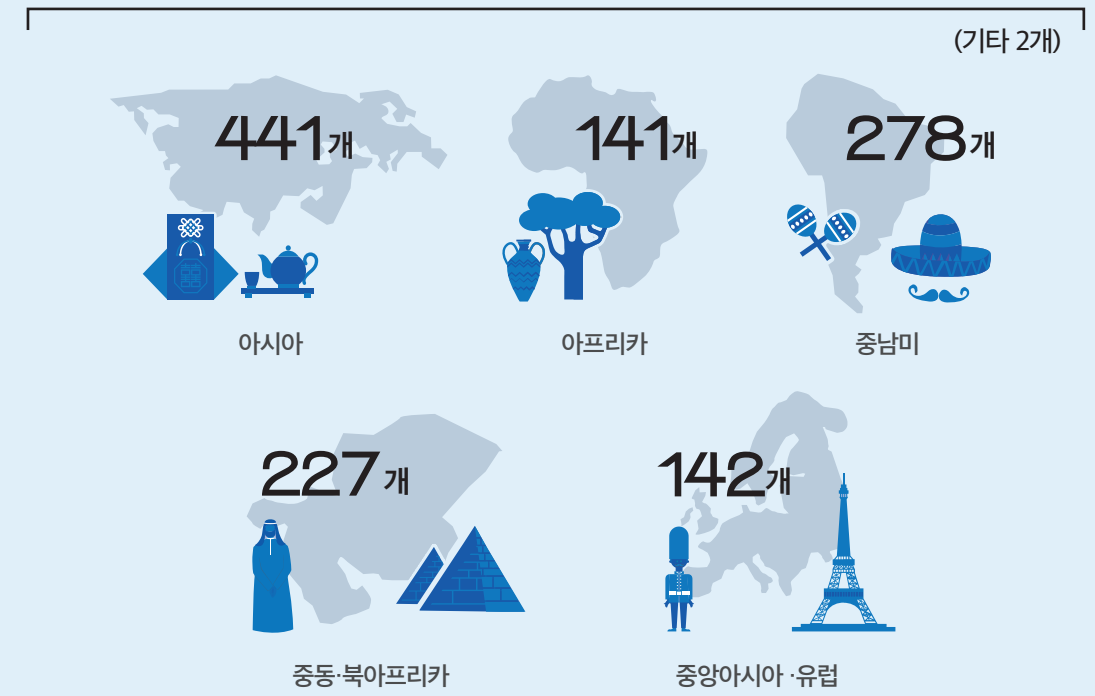
84개 협력국, 10개 국제기구와 구축한 협력 네트워크는 지식공유의 토대이자 공동번영과 경제협력의 핵심요소입니다.

## PROJECT BY YEAR

### 연도별 사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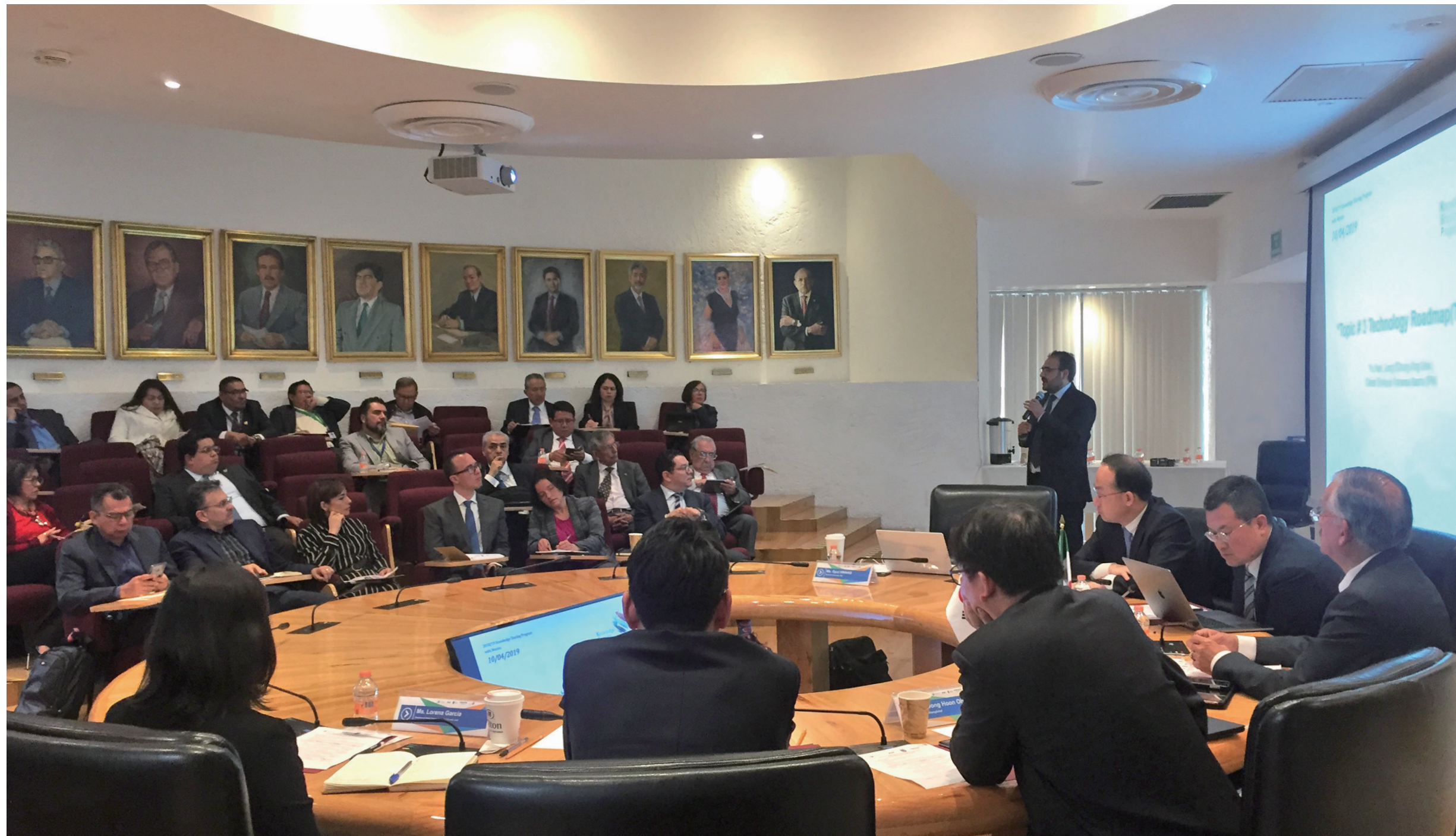
### 숫자로 보는 KSP (1,231개의 사업 중)



### 각 지역별 KSP 최다 시행국가







2018/19년도 KSP 추진 현황

## 2018/19년도 KSP 사업기획



### 사전 타당성조사 강화

사업 신청 273건 → 사업 수행 46건(16.8%)

KSP 정책자문사업은 협력대상국 정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사업을 선정하며, 공동컨설팅사업은 국제기구에서 직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다.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id, ODA) 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수원국은 사업 2년 전(N-2년)에, 그 외 국가는 사업 전년도에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 2018/19년도 대상 사업으로 52개국에서 230건, 6개 국제기구에서 43건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사업의 적합성과 효과성, 중복 추진 여부, 후속 사업 연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사전 타당성조사와 민간 전문가 평가를 거쳐 46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협력대상국의 정책 환경과 우선순위는 정책자문사업의 성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KSP는 이런 점을 고려해 사업 착수 시점에 사전 협의를 제도화하고, 양국의 고위 인사 간 정책 대화를 통해 정책자문 수요와 해당 정책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다. 이로써 신청 시점(N-2년)과 착수 시점(N년) 간 시차로 인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 협력 채널 다변화

7개국, 1개 다자협의체와 신규 파트너십 구축

2018/19년도 KSP를 통해 7개국, 1개 다자협의체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신남방정책 대상국인 말레이시아(산업정책), 인도(투자유치)와 처음으로 KSP를 시작했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사무국 주도 아래 주요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의 협력사업을 진행했다. 유럽연합(EU)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벨라루스(디지털 경제)와 세르비아(전자정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금융시장), 르완다(전자정부), 우간다(전자정부)도 KSP를 통해 새롭게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해당 분야의 발전 전략과 정책수단, 인프라 개발계획에 대해 자문했다.



### 선택과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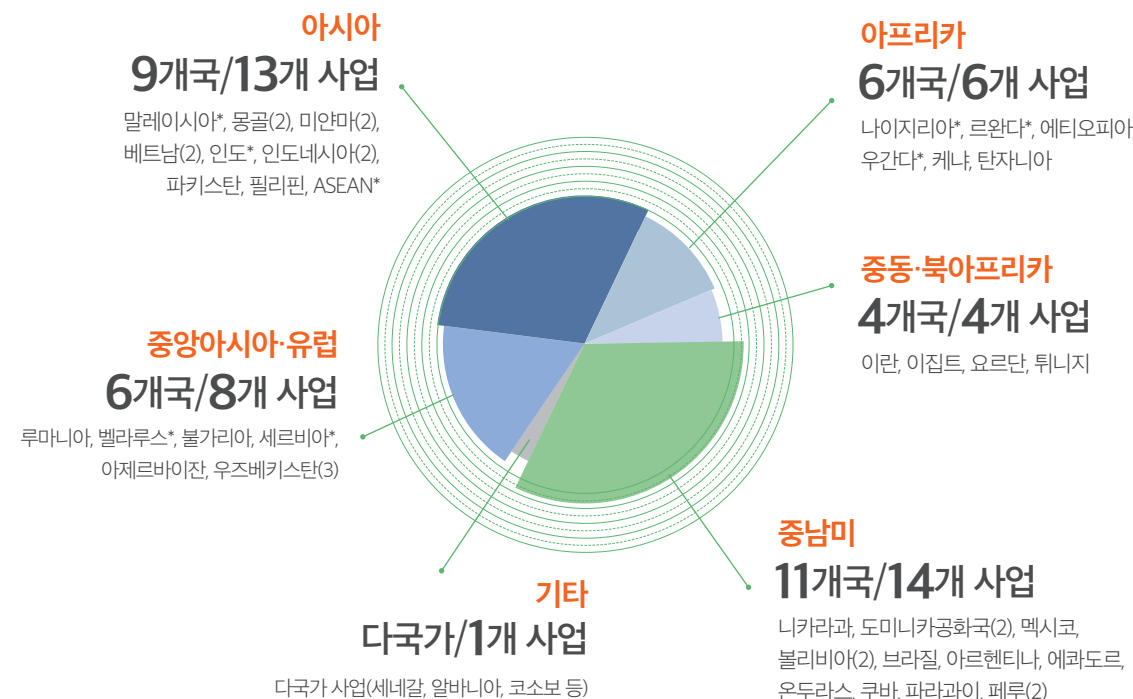
산업·무역, 국토개발, 행정(전자정부) 등 협력 유망 분야

2018년에 수행한 46개 KSP 사업 중 24개 사업(약 52%)이 산업·무역정책(8개), 국토개발정책(8개), 행정(8개) 분야에 집중됐다. 수출 지향적 산업 육성정책 등 한국의 성장전략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으로 산업·무역 정책은 줄곧 협력 수요가 가장 높은 분야 중 하나였다. 2018/19년도 사업은 특히 국토개발과 행정 분야의 사업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디지털 기술에 기초한 도시개발 인프라(스마트시티, 교통 인프라), 전자정부(데이터 센터, 전자 조달, 토지 정보 시스템) 등 한국이 비교 우위에 있고 후속 사업을 연계해 민간기업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 2018/19년도 KSP 협력국 및 분야별 현황

### 지역별 협력국 현황

\*:신규협력국, ():2개 이상의 사업을 실시한 국가의 사업 개수



### 정책 분야별 사업 현황

경제정책(29개 사업)



사회정책(7개 사업)



공공 부문(10개 사업)



## 2018/19년도 KSP 주요사업

# 케냐



(2019년 기준)

- 수도 나이로비
- 면적 58만km<sup>2</sup>
- 인구 5,140만명
- 1인당 GDP 2,961달러
- 협력부처 **콘자개발청 (KOTDA)**

### 케냐 콘자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정책자문

케냐는 '실리콘 사바나(Silicon Savannah)'를 표방하며 아프리카 지역의 디지털 허브 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밝혀왔다. 케냐 정부는 산업구조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수도 나이로비에서 60km 거리에 있는 콘자(Konza) 지역에 혁신단지(Technopolis)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을 통해 2017년부터 콘자 테크노폴리스에 KAIST를 모델로 케냐 과학기술원 건립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케냐 정부는 2008년 발표한 국가 발전 계획 '비전 2030(Vision 2030)'의 대표 사업 중 하나로 콘자 테크노폴리스 개발을 명시했다. 국제금융공사(IFC)의 지원을 통해 2009년 콘자 테크노폴리스 개발 타당성조사를 실시했고, 2013년에는 글로벌 컨설팅사가 참여해 1단계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케냐 정부와 콘자 테크노폴리스 개발청(Konza Technopolis Development Authority, KOTDA)은 본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콘자 디지털미디어시티(Digital Media City, DMC)를 조성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허브로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 미디어센터를 개발하고자 했다. 디지털미디어시티 개발 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 케냐 정부는 KSP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2018/19년도 케냐 KSP는 콘자 DMC의 콘셉트 개발, 사업성 분석, 관련 규제 및 법률 검토, 마스터플랜 수립, 자금 조달계획 검토 등을 포함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성격의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주)도화엔지니어링과 서울시립대학교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했으며, 한국의 상암 DMC 모델을 벤치마킹해 사업 효과를 전망하고, 콘자 DMC 기본계획을 제안했다.

2018년 12월에 사업의 첫 단계로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케냐 정보통신부 CFO 등 관련 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 목표와 연구 방향,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성격의 사업으로 이후에 타당성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등의 후속 단계에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현재 수립 중인 2차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입지, 교통, 인프라 등 DMC 대상지의 투자 환경을 점검했다. KSP는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활동과 연계한 투자 진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한다\*. 2019년 4월 국회, 정부 부처, 지방정부, 콘자 테크노폴리스 개발청,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기업 관계자 등 25명의 방한 연수를 계기로 '케냐 디지털미디어 시장 투자 진출 세미나'를 개최했다.



케냐 디지털미디어 시장 투자 진출 세미나(2019. 4. 8)

국내 30개 기업에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콘자 DMC 조성계획, 케냐 디지털미디어 시장 환경, 콘자 테크노폴리스의 투자 환경 및 인센티브, 현지 민간 콘텐츠업체 현황 등을 소개하고 투자 기회를 모색했다. 콘자 DMC가 조성되는 마쿠에니 카운티의 키부타 킵와나(Kivutha Kibwana) 주지사가 직접 투자 환경을 발표하고, 존 타누이(John Tanui) 콘자 개발청장이 DMC 조성계획을 발표했으며, 그 외에도 국회 ICT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명, 케냐 영화진흥위원회 대표 등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해 향후 경제협력을 위한 케냐 정부와 국내 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유용한 기회가 되었다.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 입주 기업 방문(2019. 4. 11)

\* 케냐 투자 진출 세미나 외에도 '한-브라질 ICT 컨퍼런스' (2019. 08, 브라질), '한-페루 물류 협력 기업 간담회' (2019. 04, 한국), '한-쿠바 패키징 기업인 간담회'(2019. 06, 쿠바) 등을 통해 민간기업 간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케냐 연구단은 한국의 신도시 개발과 첨단산업단지 정책, 4차 산업혁명과 도시의 경쟁력, 스마트시티에 대한 전문가 강연을 통해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암 DMC(첨단산업센터, S-Plex 센터 등), 판교 테크노밸리(스타트업 캠퍼스, 3D 프린팅 기업), 서울시 안전통합상황실 등을 방문해 디지털미디어시티, 첨단산업단지, 스마트도시 모델의 실제 운영 사례와 노하우를 확인했다. 킵와나 주지사는 귀국 후 케냐 공영방송(KBC)에 직접 출연해 초청 연수 장면과 함께 콘자 DMC 개발 계획과 KSP를 소개해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고위 인사가 다수 참여한 초청 연수를 통해 케냐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국의 디지털미디어시티를 직접 방문해 케냐 정부 내에서 한국의 정책 경험과 기술력에 대한 긍정적 인상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2019년 5월에는 한국의 연구진이 나이로비를 방문해 연구 중간 결과에 대해 협력국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부처 면담을 통해 사업화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점검하고 정부 내에서 공감대를 확산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도 참석해 사업계획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사업의 자원 조달 및 연계 방안을 검토했다. 또 재무부를 방문해 케냐 정부의 자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예산 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KSP 정책자문 보고서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했다. 2019년 8월에 케냐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정보통신부, 콘자 개발청, 영화진흥위원회, 민간 콘텐츠 개발업체 관계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콘자 DMC 개발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소개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예상되는 사업의 수익성과 경제적 효과를 전망했다. KSP 연구진은 개발사업의 내부수익률을 11%로 전망

했으며, 콘자 DMC 조성으로 4만 7,0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1억 6,500만 달러 규모의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후속 사업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탄자니아 소재 한국수출입은행 현지 사무소에서 참석해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 재원의 활용 방안을 설명했다. 조셉 무체루(Joseph Mucheru) 정보통신부 장관은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와 수익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신속하게 DMC 조성사업을 이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2018/19 케냐 KSP는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DMC 조성사업의 이행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사업 단계마다 국내 유관 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사업 종료 이후 케냐 정부는 후속 지원사업으로 콘자 DMC 조성사업의 타당성조사를 계획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경험증진자금(Economic Development Promotion Facility, EDPF)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0년 10월 현재 약 9억 3,000만 원 규모의 타당성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2020/21년도 케냐 KSP 사업을 통해서 DMC 조성사업과 연계해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개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과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본 사업이 아프리카에서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선도적 경쟁력을 지닌 케냐 시장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고, 케냐 정부도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콘자 DMC 개발현장(2019. 5. 30)



케냐 콘자시티 내 디지털미디어시티 건설을 위한 정책자문 최종보고회(2019. 8. 26)



### 케냐 콘자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정책자문

**사업내용** 콘자 디지털미디어시티 개발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및 운영방안 정책자문  
(컨셉트 개발, 사업성 분석, 관련 규제 및 법률검토, 마스터플랜, 자금조달계획 등)

**성과 및 기대효과** 케냐 디지털미디어 시장 투자진출 세미나 개최(2019. 4월)  
콘자 디지털미디어시티 타당성조사 시행중(EDPF 연계, 약 9억 3,000만원)

## 2018/19년도 KSP 주요사업

# 루마니아



(2019년 기준)

수도 부쿠레슈티

면적 238,397km<sup>2</sup>

인구 1,936만명

1인당 GDP 12,483달러

협력부처 기업환경통상부

### 루마니아 생산성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수립 지원

루마니아는 유럽 국가 중 첫 번째 KSP 협력국으로 2012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루마니아 정부는 2007년 EU 가입 이후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적자원개발, 노동시장, 과학기술혁신, 중소기업 육성 및 생산성 등의 분야에서 KSP 정책자문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2016년부터는 루마니아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정책자문사업을 추진했다. 루마니아 기업환경통상부(Ministry of Business Environment, Commerce and Entrepreneurship)는 2016/17 KSP를 통해 한국생산성본부의 사례에 주목했으며, 민간기업의 경영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계에 확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독립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당시 루마니아 정부는 한국의 모델을 벤치마킹해 국가생산성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2017년 8월에 생산성센터 설립을 위한 전략과 조직 구조,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부사업 개발 등에 대한 정책자문사업을 신청했다. 2017년 11월에는 루마니아 기업환경통상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루마니아 생산성센터 설립을 골자로 한 기관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18/19년도 KSP는 앞선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루마니아 생산성센터의 설립·운영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동시에 기업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전략 수립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개발을 지원하고자 했다. 기업환경통상부가 벤처·스타트업 기업 육성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중요한 정책 이슈로 판단하고, 생산성센터의 설립뿐 아니라 국가 단위의 성장전략에 대한 정책자문을 함께 요청했기 때문에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했다.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종료 이후에도 협력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한국생산성본부가 직접 연구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했다. 루마니아 정부의 개각 및 부처 내 조직개편 등으로 2019년 2월에야 부쿠레슈티를 방문해 사업 첫 단계인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슈테판라두 오프레아(Stefan-Radu Oprea) 기업환경통상부 신임 장관 면담을 통해 관련된 정책 환경과 우선순위를 재확인했으며 생산성 혁신 전략,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생산성 센터의 조직과 운영 방향, 지속가능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 등 각 자문 주제의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그 외에도 유럽기금부, 상공회의소, 부쿠레슈티 경제대학교 등을 방문해 관련 정보를 수집했으며, 기업환경통상부와 한국생산성본부 간 루마니아 생산성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조인식을 실시했다.



루마니아 생산성연구센터 설립 양해각서 조인식(2019. 2. 11)

같은 해 5월 '현지세미나 및 세부실태조사'와 연계해 루마니아 정부는 부쿠레슈티 경제대학교에 생산성연구센터(Research Center for Productivity)를 설립했다. 5월 8일에 열린 개소식에는 루마니아 기업환경통상부 장관, 부쿠레슈티 경제대학교 총장, 생산성연구센터소장, 주 루마니아 대사,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제대학교 소속 전문 인력 20여 명이 참여하는 연구센터는 국가 생산성 측정·분석 및 국제 비교, 기업 생산성 관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주요 기능으로 설립되었다. 각 기능은 한국생산성본부가 개발해 운영 중인 국제생산성지표, 생산성 경영체계 인증제도, 기타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분야로서 2018/19 KSP를 통해 구체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현지 조사의 일환으로 XMERA, Tremend, Gemini Solutions 등 중소벤처기업 간담회를 실시하고,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Nod Makerspace를 방문해 루마니아 중소벤처기업 지원 현황을 파악했다.



루마니아 기업환경통상부 생산성센터 설립 계획 언론 보도(2017. 5. 31, Romania Insider)

\* 2019년 말 루마니아 정부부처 개편에 따라 경제·통상산업·기업환경부(Ministry for Economy, Trade, Industry and the Business Environment)로 통합되었다

루마니아 KSP는 생산성센터의 조속한 설립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목표로 기획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역량강화연수를 두 차례로 나눠 실시했다. 2019년 4월 실시한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를 통해 정부 및 대학 관계자 8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강연, 기관 방문을 실시하고 한국의 생산성 관리 및 혁신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생산성본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IBK 기업은행, 울랄라랩(스마트팩토리 전문 기업) 등을 방문했으며,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진흥정책과 벤처기업 육성정책 등에 대한 강의로 제공했다. 생산성연구센터가 설립된 이후에는 직무교육 성격의 심화연수를 제공했다. 센터 실무진과 주요 관계자 10명을 초청해 한국생산성본부가 운영 중인 생산성 측정 및 통계 작성, 생산성 경영체계 인증, 교육훈련 및 자격사업의 이론과 실무를 집중 학습했다. 그 외에도 창업진흥원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모델 중 하나로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했다.

2019년 7월에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를 통해 그간의 연구 결과와 주요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루마니아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인적자본 축적, 중소기업 역량강화,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합하는 거버넌스 구축, 성과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며, 관련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생산성센터 설립을 통해 생산성 관리 및 혁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기업환경통상부 차관과의 고위정책대화에서는 루마니아 생산성센터가 생산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련 통계를 산출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경영혁신과 인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루마니아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마니아 정부는 현재 대학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생산성연구센터를 국가 단위의 생산성센터로 확대'하고,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기업 생태계와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기업환경통상부는 센터를 설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지지를 얻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KSP 연구 결과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관련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종료 후에는 루마니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설립 초기의 조직 구성, 부문(기능)별 역할, 예산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는 루마니아 생산성센터 설립 제안서를 작성해 기업환경통상부에 제출했다. KSP를 계기로 구축된 양국의 협력관계와 객관적 연구 결과가 향후 루마니아 생산성센터의 설립과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제도화하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정부 내에서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센터가 설립된 이후 루마니아 정부와 민간의 수요를 반영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데에도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생산성본부가 직접 수행 기관으로 참여해 루마니아 정부, 생산성연구센터와 신뢰에 기반한 협력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KSP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실질적 협력을 통해 루마니아의 정책과제 해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루마니아 정부는 금번 설립한 생산성연구센터가 생산성 측정, 통계 작성, 기업 생산성 관리, 교육훈련 등 연구기능 중심의 조직으로서 국가 단위 생산성센터 설립의 초석으로 기능하는 동시에 생산성센터 내 연구 부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루마니아 생산성연구센터 개소식(2019. 5. 8)

## ROMANIA

**루마니아 생산성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수립 지원**

---

**사업내용** 루마니아 국가생산성 제고방안 및 생산성센터 설립방안 정책자문 (생산성 혁신 전략, 중소벤처기업 혁신역량 개발, 생산성센터 설립 구조 및 기능 설계,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방안 등)

---

**성과 및 기대효과** 한국생산성본부-루마니아 기업환경통상부 간 생산성센터 설립을 위한 MOU 체결 (2019. 2월)  
루마니아 경제대학교 내 생산성연구센터(Research Center for Productivity) 설립 (2019. 5월)

## 2018/19년도 KSP 주요사업

# 세르비아



(2019년 기준)

수도 베오그라드

면적 88,361km<sup>2</sup>

인구 706만명

1인당 GDP 7,234달러

협력부처 전자통신 및  
전자정부실

### 세르비아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세르비아 정부는 2025년 EU 가입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정하고 사회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digitalization)과 전자정부 구축을 통해 경제성장과 공공행정 효율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아나 브르나비치(Ana Brnabic) 총리의 주도 아래 이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도 2016년에 전자정부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 UN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뿐 아니라 세르비아의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영리 자문기구(NALED)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함께 전자정부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세르비아 정부는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KSP 정책 자문사업을 요청했다. 현재 정부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한 제2데이터센터 설립을 계획 중인 상황인 만큼 KSP를 통해 데이터센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정책자문과 함께 시스템 디자인과 구성요소에 대한 기술자문을 희망했다. 2018년 7월 양측은 세르비아에서 사전 협의를 실시하고 사업 목표와 범위를 구체화했다.

2018/19년도 KSP는 세르비아와 함께한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데이터센터 구축과 시스템 설계를 위한 정책자문을 제공했다. 세르비아 정부는 이에 앞서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건축·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은행의 차관(loan)을 활용해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수립했다. KSP는 그간의 프로젝트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서 한국의 전자정부 정책 경험과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에 필요한 종합적 정책자문을 실시했다. 사업의 첫 단계로 2018년 10월 세르비아를 방문해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세르비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관련 경험과 향후 연구 방향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정책수요를 통해 연구 주제를 조정했다. 협력 부처인 정보통신 및 전자정부실(The Office for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E-government, 이하 전자정부실)을 포함해 총리실, 행정자치부, 유럽통합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와 세계은행, UNDP 등 국제기구 전문가를 면담하고 KSP 정책자문사업의 방향성과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세르비아 KSP는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데이터센터 설립을 제도적·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이 시스템 구축, 장비 구입 등 국제 조달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기술력을 보유한 케이티(KT) 등 민간기업의 IT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진을 구성했으며, 각 사업 단계마다 협력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와 현



한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방문(2018. 12. 13)

지에 진출한 다국적 IT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했다. 2018년 12월에 국내에서 실시한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를 통해 전자정부실 공무원 5명, 비영리 자문기구 NALED 전문가 3명을 초청했다. 세르비아 연수단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을 방문해 한국의 전자정부 정책과 서비스, 사이버 보안 기준 등에 대한 실무교육에 참석했다. 또 KT, 시큐레이어, 네이버 클라우드센터 등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시설 현황, 운영·관리 노하우, 시행 중인 주요 사업을 직접 확인하고, 기술적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연수단은 방한 연수를 계기로 자국의 기존 데이터센터를 평가하고, 향후 요구되는 기술적 특성과 한국 기술 수준의 적합성을 비교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 현지 기술 수준에 부합하는 데이터센터 구성 요소에 대한 정책자문 결과를 도출하고, 해당 분야의 후속 기술협력 가능성을 고려해 세르비아 현지 기업 및 다국적 기업을 면담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세르비아 텔레콤, 오라클(Oracle), 사가(Saga), 아세코(Asseco), 화웨이(Huawei), 볼프로스(Bulpros) 등 IT 기업 면담을 통해 세르비아의 정보통신기술 환경, 기업별 보유 기술 현황, 정부-민간기업 간 협력 방식, 운영 과정에서의 기술적 이슈를 확인해 정책자문 보고서에 반영했다. 나아가 세계은행 차관사업을 포함한 후속 사업 연계를 위해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관련 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과 현지 다국적 기업 간 양해각서 체결을 지원하기도 했다.

2019년 5월 세르비아에서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를 개최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별 데이터의 안정적 통합 및 이전 방안,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과 서비스 구성 방안, 데이터 센터의 시스템 구성 요소 등에 대한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미하일로 요바노비치(Mihailo Jovanovic) 전자정부 부실장, 조란 라도이치치(Zoran Radojicic) 베오그라드 시장 등 고위 인사 면담을 통해 정책 권고안을 설명하고, 정책 이행 및 후속 사업을 위한 관심을 당부하며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그뿐 아니라 세르비아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기업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정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의 전자정부 정책 경험과 성공 요인, 정부(G2G), 기업(G2B), 국민(G4C)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소개하고, 세르비아 전자정부 전략에의 시사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사업이 진행되던 2019년 4월 세계은행은 5,000만 달러 규모의 세르비아 전자정부 프로젝트 차관사업(Enabling Digital Governance Project)을 승인했다. 이 가운데 약 1,300만 달러는 재난에 대비한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에 활용될 예정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다. KSP를 통해 강화된 양국 민간기업 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종료 후에도 관련 분야의 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면서 경제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전자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비교 우위가 뚜렷한 분야다. UN이 2년마다 발표하는 전자정부 발전지수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하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줄곧 최상위권을 유지해왔다. 그간 KSP를 통해서도 조달·관세·재정·조세·특허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자정부 이행 전략을 모색했으며, 과테말라·온두라스·아르헨티나·필리핀 등 국가를 대상으로도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수단과 기술 요소를 종합적으로 자문했다. 앞으로도 맞춤형 정책자문을 통해 정부 간 우호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민간기업 전문가가 KSP 사업에 참여해 사업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경제협력 기회를 창출한다는 사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NALED 전문가그룹 및 ICT 기업관계자 면담(2018. 11. 2)



전자정부 정책세미나 개최(2019. 5. 24)



전자정부 정책세미나 개최(2019. 5. 24)

# SERBIA



## 세르비아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업내용** 클라우드 기반 국가 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및 기술 자문 (법·제도 개선방안, 기관별 시스템 및 데이터의 효과적 이관 방안, 데이터 센터의 조직과 서비스 설계, 데이터센터 시스템 구성요소 기술자문 등)

**성과 및 기대효과** ICT 분야 한-세르비아 민간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 및 MOU 체결 지원(2019.5월)  
세계은행 차관사업 연계 등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 모색



## 2018/19년도 KSP 주요사업

# 인도네시아



(2019년 기준)

- 수도 자카르타
- 면적 190만km<sup>2</sup>
- 인구 2억6,61만명
- 1인당 GDP 4,197달러
- 협력부처 건강보험공단  
(BPJS-Kesehatan)

### 인도네시아 사회건강보험제도 실행 지원

인도네시아 KSP는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인도네시아의 '사회보장정책 리뷰(Social Protection Policy Review)'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활용한 KSP 정책자문사업을 신청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1977년)보다 앞선 1968년부터 공무원과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왔다. 이후 2011년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공무원, 사업장 근로자, 저소득층 등 각 대상별로 세분화된 건강보험을 통합 운영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2014년 통합 기구로 건강보험공단(BPJS-Kesehatan)을 설치했다.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까지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통해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KSP 사업이 종료된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국민 중 83.4%, 약 2억 2,200만 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의 건강보험공단은 단일 보험자로서는 세계 최다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KSP는 인도네시아 건강보험정책 기초와 보조를 맞춰 2013년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건강보험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컨설팅을 제공했다. 보장성, 자원 조달 및 의료비 지출, 운영 체계 측면에서 인도네시아 건강보험 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듬해에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프로젝트와 연계한 공동컨설팅사업을 실시했다. 한국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할과 정보통신기술 활용 사례를 검토하여 건강보험 도입 초기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2018년 7월 사전 협의를 실시하고 사업의 목표와 범위를 구체화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보편적 의료 보장 달성을 위해 필요한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건강보험 집행 체계에서의 전략적 구매자로서의 역할과 전략 강화,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1차 진료기관 중심의 의료 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자문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건강보험공단은 우리 건강보험제도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학습하는 데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한국의 정책 경험 사례를 정책자문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담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했다.



Kecamatan Koja 보건소 방문(2018. 12. 18)



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방문(2019. 5. 2)

사업의 첫 단계로 2018년 1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관련 경험과 향후 연구 방향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정책수요를 확인하고 연구 주제를 조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해 보건부, 국가개발계획부 등 정부 부처와 보건소, 민간 의원 등 1차 진료기관, 2차 민간병원 및 국립병원 외에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외국계 사업장 및 민간보험사 등을 폭넓게 방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자문사업의 방향성을 확정했다. 이듬해 2월 '현지세미나 및 세부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8개 유관 부처 및 공공기관을 방문해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동시에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벽지의 의료시설을 방문하고 복수의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 국제기구가 시행 중인 프로젝트와 KSP를 연계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국제기구의 전문성 및 연계사업 간 시너지 효과 등 개발 효과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다자 협력사업이다.

\*\* 사회보장관리기구법(Social Security Organizing Agency Law, Law No. 24/2011)



인도네시아 KSP 중간보고회(2019. 4. 30)

2019년 4월에는 건강보험공단, 재무부, 국가사회보장위원회, 국가빈곤감소추진협의체, 보건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를 초청해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를 실시했다. 한국의 다양한 정책 경험 학습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건강보험 거버넌스, 가입자 확대, 보장성 확대, ICT 기반 재정 관리, 의료 질 평가,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 전략, 자격·부과·징수 관리 등 다양한 주제의 이론 및 실무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실시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삼성병원을 방문해 운영 실무와 노하우를 확인했다.

2019년 7월에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를 통해 약 1년 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서 한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인도네시아에 적용 가능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의 재정적 측면에서는 가입자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체계를 마련하고, 목적세 도입 등을 통한 재정 수입 다변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그간의 건강보험 적자 해소를 위해 관련 정책의 도입 방안에 많은 관심을 표했다. 또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1차 진료 기관에 대한 적정성 평가 도입과 의료 인력 및 장비에 대한 재투자가 필요하다는 점, 보건 정책 방향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초기 대응에 성공한 한국의 감염병 방역 체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다. 범정부 차원의 공조 노력과 함께 KSP를 통해서도 한국의 방역 모델(K-방역)을 협력국의 현실에 맞게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사회적 복원력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국가 재난 상황을 선포했으며, 2022년 국가개발계획에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정책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런 배경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4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에 대한 KSP 정책자문사업을 요청하였다.

현안의 시급성과 양국 간 협력관계를 고려해 2020년 7월부터 신종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강화를 주제로 KSP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KSP는 이를 위해 방역 체계를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비(preparedness) 정도를 진단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보건·사회안전망·커뮤니케이션·재난 대응·교육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시의 제도적 대응방안(responsiveness)을 자문하고자 한다. 또 코로나 이후 신종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건강보험 정보의 활용 방안과 ICT를 활용한 역학 조사 및 방역 지원 등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8월에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보험료 인상 정책, 징수 효율화 방안, 관계기관(국세청, 보건복지부, 금융결제원 등) 간 징수 데이터 공유 체계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2005년부터 KSP를 시작한 인도네시아가 K-방역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 경험을 통해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고, 코로나 팬데믹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INDONESIA

### 인도네시아 사회건강보험제도 실행 지원

**사업내용** 보편적 의료보장(UHC) 달성을 위한 건강보험 시스템 개선방안 정책자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건강보험 공단의 전략적 구매자로서의 기능 강화 방안, 의료전달체계 강화 방안)

**성과 및 기대효과** 한-인도네시아 건강보험기구 간 협력 파트너십 구축  
2020/21 KSP 정책자문사업\* 연계를 통한 코로나19 대응 지원  
\*신종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 강화: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 경험을 중심으로



## 2018/19년도 KSP 주요사업

# 볼리비아



(2019년 기준)

- 수도 라파스
- 면적 1,098,581km<sup>2</sup>
- 인구 1,164만명
- 1인당 GDP 3,671달러
- 협력부처 국영수도회사 (EPSAS)

### 볼리비아 국영수도회사 경영 효율화 및 체계적 수자원 관리계획 수립

내륙 국가인 볼리비아는 고산 지역과 빙하에서 생성되는 수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심각한 물 부족과 공급 제한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코차밤바, 엘알토 등 주요도시에서 물 관리 문제에 대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기후변화와 빠른 인구 증가는 볼리비아의 일부 고지대를 중심으로 극심한 가뭄을 야기하며, 물 부족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뿐 아니라 볼리비아 정부는 2000년대 초 물 공급을 민영화했고, 이로 인해 가격 상승과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대두했다. 이에 볼리비아 정부는 국영수도회사(Empresa Publica Social de Agua y Saneamiento, EPSAS)를 설립해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시스템을 개선하고 경영효율화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현상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했다. 볼리비아 정부는 한국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사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지 관계자의 실무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자국의 상수도 공급 및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KSP 공동컨설팅사업을 신청하였다.

볼리비아 KSP는 국영수도회사와 거버넌스 구조가 유사한 한국수자원공사와, (주)한국종합엔지니어, 한경대학교 컨소시엄이 사업 수행 기관으로 사업을 수행했다. 국영수도회사의 경영 현황과 수자원 관리 체계를 진단하고, 한국의 상수도 시설 운영·관리 경험을 통해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 방안과 경영 효율화 전략을 제안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후속 사업과 자원 조달 방안을 함께 제시했으며, 관련 실무자의 역량강화 기회도 함께 제공했다.

2019년 2월에 볼리비아 라파스를 방문해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수자원 관리 주관 부처인 환경수자원부는 상수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강조했으며, KSP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간 협의를 진전시키고, 관련 정책 결정 체계가 개선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환경수자원부, 국영수도회사와 합동으로 잉카차카 댐, 추키야기요 정수장, 아차치칼라 정수장, 상수도 감압 시설 등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국영수도회사의 정책 담당자, 미주개발은행(IDB) 수자원관리 전문관 면담 등을 통해 볼리비아 정부의 현안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했다. 이를 토대로 정책제언과 역량강화연수의 방향성을 협의하고,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사업 초기 과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해 사업 단계 전반에서 볼리비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졌다. 2019년 7월에는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를 실시했다.



수도권 상수도 통합운영센터 방문(2019. 7. 4)

특히 양국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맞춤형 강의를 계획함으로써 역량강화연수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했다. 수도요금정책, 유수율 관리, 수자원 관리 방식 등에 대한 학습과 함께 노후 관로 진단 및 관망 개선 실습 교육을 진행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의 물중합상황실과 수질안전센터, 수도권 상수도 통합운영센터, 성남 고도정수처리시설 등을 견학했다. 이를 계기로 연수단은 한국 수자원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향후 볼리비아의 물·위생 분야의 역량개발과 기술 발전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스마트미터링 실습교육(2019. 7. 3)

최종보고회는 2019년 8월 볼리비아 라파스에서 IDB, 볼리비아 환경수자원부, 국영수도회사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그간의 현지 조사 및 자료 분석을 토대로 도출한 정책 및 기술제언들을 'EPSAS 로드맵 2030'으로 체계화해 2030년까지의 단계적 실행 계획을 제안했다.



Kecamatan Koja 보건소 방문(2018. 12. 18)



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방문(2019. 5. 2)

이 가운데 시급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4개의 후보 사업(약 5,200만 달러 규모)을 재원 조달 방안과 함께 제시해 KSP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했다. 환경부 차관과의 고위정책대화 등을 통해 양측은 KSP 사업의 결과를 활용한 후속 사업 연계 등 정책적·기술적 제안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공동컨설팅사업은 국가 현황 정보, 현지 프로젝트 경험 등 국제기구의 전문성과 한국의 발전 경험을 연계해 정책자문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추진 하는 사업이다. 볼리비아 KSP는 IDB가 축적한 볼리비아의 정치·경제 현황, 수자원 관리 인프라, 타 원조 기관이 시행 중인 유관 분야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현지 정책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기초로 한국수자원공사 컨소시엄이 우리 정부의 수자원 관리 정책과 제도, 기술 수준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정책권고안을 마련했다.

또 볼리비아 정부가 KSP 정책자문 결과를 활용해 인프라 개발 및 역량강화 등 실질적 후속 사업을 주도적·선택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 조달 방식을 검토하고 보고서에 수록했다. 특히, 아차치칼라 정수장 개량 및 기술진단사업, 티라타 정수장 자동제어장치 구축사업, 관망기술진단 마스터플랜사업,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사업 등 KSP를 통해 제안한 4개의 후보 사업에 대해 볼리비아 정부가 활용 가능한 유·무상 원조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 방식을 제시했다. 인프라사업의 경우 유·무상 원조를 단계적으로 연계하고 협조 용자를 통한 재원 조달 방식을 제안했으며, R&D 사업 및 역량강화사업은 IDB 등 다자개발은행의 컨설팅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제안했다.

KSP 사업을 통해 양측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유관 분야의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호혜적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수자원 관리 분야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현지 진출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공동컨설팅사업의 장점을 활용하여 정책자문 결과를 IDB 등 국제기구와 폭넓게 공유하고, 후속 사업으로 연계해 실질적 정책변화와 인프라 개발을 위한 이행 수단을 마련한다면 볼리비아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와 식수 위생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볼리비아 국영수도회사 경영 효율화 및 체계적 수자원 관리계획 수립**

**사업내용** 볼리비아 상수도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및 기술 자문  
(볼리비아 상수도 관리 시설 및 시스템 현황 분석, ICT 기반의 수자원 관리 사례 분석, 볼리비아 수자원 관리 효율성 제고 전략, 시범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제안 등)

**성과 및 기대효과** 4건의 후속사업 후보 도출 및 상수도 인프라 사업 연계 기대

## 2018/19년도 KSP 성과확산

### “불확실성을 넘어 지식공유의 미래를 말하다.”

기획재정부와 KSP사업총괄기관인 KDI는 유관 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국제 개발협력의 주요 이해 관계자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KSP 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사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KSP 성과 공유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2019년 9월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5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확실성을 넘어: 지식공유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성과공유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에서는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이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식공유의 KSP의 역할에 대해 논의 하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개회사에서 KSP 출범 15주년을 기념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서는 지식공유를 통해 ①혁신적 포용을 확산하고, ②경제협력을 촉진하며, ③불확실성을 극복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가 함께 추구하는 가치의 지향점으로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와 개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포용성 강화를 제시했다. 지식공유가 제도·정책의 변화를 지원할 뿐 아니라 인프라 개발, 교역·투자 등 국가 간 경제협력으로 연결되고, 실물 부문의 성장을 자극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하며, 2020년에는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EIIP)을 새롭게 도입해 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퍼런스에서는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 시립대학교 교수가 “탈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생산성(Global Productivity in an Era of Deglobalization)”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1990년대 이후 광범위한 세계화의 흐름과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식과 기술도 국가 간에 이전, 확산되면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의 저성장 기조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보호무역의 확대는 글로벌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가 간 교역과 세계화가 여전히 생산성 혁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KSP 같은 국제사회의 지식공유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전망했다.



## 2019년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개회사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학교 교수 기조연설



2019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첫 번째 세션은 2018/19년도 KSP 사업의 대표 성과로 ICT를 기반으로 한 필리핀의 축산물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벨라루스 국가 경제의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인도의 투자유치제도 개선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로돌포 비세라(Rodolfo Vicerra) 필리핀 농업부 차관은 KSP를 통해 ICT 기반의 축산물 품질 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모색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실제 이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도입한 뒤 기업형 생태계가 구축되는 등 긍정적 변화도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드미트리 야로체비치(Dmitry Yarochevich) 벨라루스 경제부 차관은 KSP를 통해 국가 단위 디지털 전환 전략과 주요 산업별(기계제조업, 석유화학, 제약) 전환 계획을 검토했으며,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벨라루스 디지털 전환 로드맵 수립을 보다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벨라루스는 19/20 KSP로 해당 주제의 후속 사업을 신청했으며, 19/20 KSP로 기계제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방안에 대한 정책자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끝으로 마드후미타 라마나탄(Madhumitha Ramanathan) 인도 투자청(Invest India) 부사장은 한-인도 양국 간 경제협력력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현재 500여 개의 한국기업이 인도에 진출해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청에 국가별 전담 데스크를 새로 설치하면서, 한국 전담 데스크도 신설하였다는 사실을 공유하였다.



## 2019년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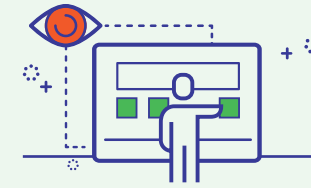
또한, 2018/19년도 KSP를 통해 연수사업으로 진행된 국제사회의 모범사례(best practices)를 실무에 도입·적용했으며, 투자청 내부적으로도 지식공유를 통해 역량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지식공유를 통한 포용과 혁신'을 주제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은 지식공유가 포용적 성장을 선도함으로써 개도국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알프레도 페르디게로(Afredo Perdiguer) 아시아개발은행(ADB) 과장은 아시아 지역에서 연 5% 내외의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을 진단하고, ADB의 대응 전략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기회 제공, 보건 서비스 증진, 금융 접근성 확대, 사회적 보호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발전 경험을 활용한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성철 과학기술연립대학원 교수는 과학기술 및 혁신 역량과 경제발전 간 실증적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KSP 협력 대상국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를 선별해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공유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수위파 와나사톱(Suwipa Wanasathop) 태국 과학기술개발원 부원장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 간 과학기술 및 혁신 역량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국 맞춤형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례로 태국 고유의 기술평가시스템(Thailand Technology Rating System, TTRS)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2017/18 태국 KSP 사업을 꼽았으며, 동 사업을 통해 혁신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었음을 언급하였다. 오동훈 와이젠글로벌(주) 대표이사도 지식공유가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정책 경험을 일방향적으로 전수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KSP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국의 경제·사회적 환경에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개발하고, 특히 과학기술 핵심 역량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계획 수립을 지원해야함을 역설하였다.

마지막 세션은 좀 더 세부적인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식공유를 활용한 혁신과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2개 분과로 나눠 진행했다. 1분과는 '디지털 경제전환을 위한 KSP'를 주제로 ASEAN(지식재산권), 루마니아(생산성), 세르비아(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 에콰도르(교통 안전관리 시스템)에서의 KSP 정책자문 결과와 이를 통한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2분과는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주제로 케냐(디지털미디어시티), 페루(물류 인프라), 우즈베키스탄(대중교통 인프라), 미얀마(송배전 인프라) 사례를 통해 KSP를 활용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소개하고, 기업 진출과 연계해 협력국의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양한 사례 발표와 함께 KSP 사업의 효과성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KSP 사업의 비전과 방향성과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

## 2018/19년도 KSP 성과확산



## 2019년 KSP 유라시아 지역 세미나



2019년 KSP 유라시아 지역별 세미나

지역별 세미나는 각 권역별로 국가들이 공통으로 당면하고 있는 정책 과제에 대해 KSP 사업의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인접국 간 상호 학습을 도모하고, 지식공유의 개발 효과성을 높이고자 개최되고 있다. 지역별 세미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후속 사업을 기획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KSP는 2012년부터 지역별 세미나를 도입하였으며 아시아(6회), 중남미(3회), 아프리카(1회), 유럽(3회)등지에서 총 13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2019년에는 신북방정책의 주요 거점 국가의 협력을 촉진하고자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투자 제도 정비'를 주제로 유라시아 KSP 지역 세미나(9월 23일)를 개최했다.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는 카자흐스탄을 포함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아제르바이잔 등 역내 국가의 KSP 사업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유라시아 지역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자문사업(150개 주제) 중 약 40%가 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 정책에 대해 실시되었다. 이는 자원 의존적 경제구조를 지닌 유라시아 국가들이 산업 다각화와 경쟁력 제고를 최우선 순위의 정책 목표로 두고 있으며, 해외투자를 통한 자본 유입과 기술 이전 등이 선결되어야만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019년 KSP 유라시아 지역별 세미나 질의응답

유라시아 지역 세미나에서는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투자 유치 전략과 해외직접투자(FDI) 촉진을 위한 제도적·환경적 요건에 대해 한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에 우즈베키스탄(경제특구), 우크라이나(산업단지), 불가리아(중소기업 육성), 카자흐스탄(투자 유치 기구) KSP 사례와 그 효과를 되짚어 보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KSP 자문 결과를 활용해 투자 유인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개선했음에도 해외 직접투자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는 해외 투자자에 대한 혜택과 투자 유치 정책에도 투자비용 및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시장 규모, 경제성장률, 개방도, 정치적 안정성, 기업 환경, 인적자본, 기술 수준, 입지 및 인프라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간 KSP를 통한 협력이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해 추진되어온 이유도 이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동 세미나에서는 최근 역내 주요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 발전 정책 이니셔티브 사례를 소개하고,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향후 KSP 협력 분야를 발굴 할 수 있었다.

\* 실제 최근 5년간(2015-2019년) 러시아를 제외한 유라시아 지역의 FDI 유입액은 전 세계 FDI 총액의 1% 미만인 것으로 집계되었다.(UNCTAD, 2020)

## KSP 사업 소식(2018-2019년)

###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동의장 성명’ 채택 - 2018/19 아세안 KSP에 대한 긍정적 평가 포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019년 11월 26일)

2019년 11월 2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의장 성명에 아세안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19 KSP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었다. 지식재산권(IP) 인프라 강화 방안에 대한 KSP 정책자문사업을 통해 10개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인프라 현황을 분석하고, 한-아세안 IP 교육훈련센터 설립 방안,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지원정책 등을 자문했다.

>> 공동의장 성명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특허 심사, 지적재산권 교육 및 상업 분야에 있어 아세안의 지적재산권 관련 인프라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이 2018-2019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데 기여한 것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2019년 11월 25일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지적재산권 정책 및 규제와 관련한 지속적인 대화와 정보 공유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교육에 있어 아세안과 대한민국 간 지속적 협업을 기대하였다.”



2018/19 아세안 KSP 최종보고회(2019년 7월 10일)

###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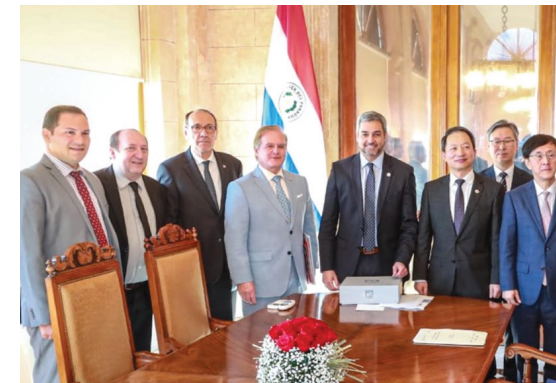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즈니스포럼(2019년 9월 4일)

기획재정부는 2020년에 KSP의 새로운 사업 모델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EIPP)을 출범하기로 하였다.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에 대한 발전 전략수립, 법·제도 정비를 위한 정책자문뿐 아니라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의 기획 단계까지 지원하는 포괄적인 사업으로, 1개 분야에 대해 3년 이상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0년 현재 미얀마(전력·에너지), 인도네시아(수도 이전), 우즈베키스탄(스마트시티)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KSP 사업 소식(2018-2019년)

### 파라과이 대통령 면담 및 KSP 사업결과 보고



일자: 2019년 6월 24일  
장소: 파라과이 대통령궁(아순시온)

KSP 연구진은 2019년 6월 24일 파라과이 대통령궁에서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Mario Abdo Benitez) 대통령을 면담하고, 2018/19 파라과이 KSP 정책자문 결과로 국토·도시 부문 정책연구 기관 설립 계획을 보고했다. 연구 기관의 필요성과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조했으며, 대통령도 이에 공감하며 대통령령 제정 등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다. 사업 경과가 정책과 제도로 구현되는 사업 특성상 KSP는 협력국 고위 정책 결정자(장·차관급)의 관심을 이끌어냄으로써 정책 반영 가능성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멕시코 국회 상원 대상 한국 발전 경험 세미나 개최



일자: 2019년 6월 4일  
장소: 멕시코 국회 상원(멕시코시티)

KDI는 2019년 6월 4일 멕시코 국회 상원에서 한국 발전 경험 세미나를 개최했다. 멕시코 사업의 최종보고회와 연계해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멕시코 상원과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는 마르티 바트레스(Marti Batres) 상원의장을 포함해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역할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경제발전 정책 경험과 한국 과학기술의 역동적 변천사’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 KSP 사업 소식(2018-2019년)

### 한 - 브라질 ICT 컨퍼런스 및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KOTRA는 2019년 8월 21일~22일 양일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한-브라질 ICT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했다. 브라질 사업의 최종보고회와 연계해 개최한 행사에는 국내 ICT 기업 7개사와 브라질 ICT 분야 정부 부처, 협회,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ICT 정책·스마트시티·5G·사물인터넷(IoT)·AI·빅데이터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으며, 한국 주요 기업의 ICT 제품 및 솔루션을 현지 관계자에게 소개하고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는 등 투자 진출 기회를 모색했다.

일자: 2019년 8월 21일~22일  
장소: 브라질 상파울루 티볼리 호텔

### KSP와 연계한 ODA 국제 조달시장 진출지원 설명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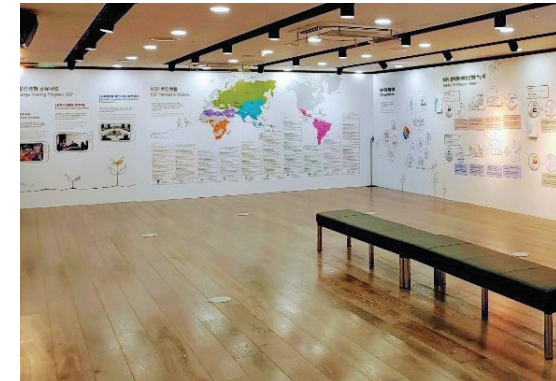


수출입은행은 2018년 10월 30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KSP와 연계한 ODA 국제 조달시장 진출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 85개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니카라과 브로드밴드 구축사업(KSP 정책자문 이후 EDCF-IDB 협조융자 연계) 등 KSP를 활용한 프로젝트 사업 기획·발굴 사례를 소개하고, EDCF 및 다자개발은행이 주관하는 국제 조달시장 진출 방안과 지원 절차 등을 안내했다.

일자: 2018년 10월 30일  
장소: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 KSP 사업 소식(2018-2019년)

### 글로벌지식협력단지 내 'KSP 성과 기획전' 개관



2019년 11월 1일부터 서울 홍릉에 위치한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KSP 성과 기획 전시를 진행 중이다. 한국의 발전경험을 학습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해외 정부부처나 국제기구의 관계자 등 국제 관람객과, 국내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소개하고, 제도 개선, 후속 사업 연계, 양국 간 경제협력 촉진 등 KSP 이후의 구체적 성과와 지식공유의 효과성을 확산하기 위한 기획전이다. 전시는 2020년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일자: 2019년 11월 1일 개관(상설전시)  
장소: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

### 대학(원)생 대상 'KSP 토크 콘서트' 개최



2019년 12월 27일부터 2020년 1월 17일까지 4주간 서울 홍릉에 위치한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KSP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한국의 경제성장 및 발전 경험'을 시작으로 'KSP를 활용한 정책변화: 공공 정책과 4차 산업혁명', 'KSP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주제로 KSP 사업 성과를 소개하고, '국제개발협력 실무 및 커리어 개발'을 주제로 취업 정보를 공유했다. 4주간 160여 명이 참석했다.

일자: 2019년 12월 27일~2020년 1월 17일  
장소: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

**PROJECT PROPOSAL**

**FOR**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 recommendations and  
... once for the Policy  
... and Policy Practitioners

... by the Korean  
... of this particular  
... OSF via official

... the entire  
... within the  
... interpart

... erve as

... organization  
... which w  
... dinating  
... ch year of

... and send to  
... orean diplo

... anization

\* 유형 분류

- 양자 : 한국과 협력국 정부간(G2G) 양자 협력방식의 정책자문사업
- 공컨 : 국제기구와 연계한 삼각 협력 방식의 공동컨설팅사업(괄호 안은 해당 국제기구)

2018/19년 KSP

사업 목록

	지역	유형	협력국 (협력부처)	사업명
1	아시아	공컨 (ADB)	말레이시아 (경제기획부)	말레이시아 산업화를 위한 정책수립 지원
2		양자	몽골 (재무부)	몽골 경제개발계획 및 인프라 자금 조달 강화 방안
3		양자	몽골 (도시개발부)	몽골 울란바토르 신공항 주변 지역 스마트항공사티 개발 방안
4		양자	미얀마 (전력에너지부)	미얀마 송전 및 배전 시스템 개선 지원
5		양자	미얀마 (철도청)	미얀마 지속가능한 철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환경 문제 개선 지원
6		양자	베트남 (다낭시)	베트남 다낭시 도시철도 개발계획 및 운영 지원
7		양자	베트남 (기획투자부)	베트남 PPP법 제정 및 프레임워크 개발계획 수립 지원
8		양자 (연수)	인도 (투자청)	인도 투자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량 강화
9		양자	인도네시아 (국가감사위원회)	인도네시아 내부 감사 강화를 통한 정부 책무성 증진 방안
10		공컨 (OECD)	인도네시아 (건강보험공단)	인도네시아 사회건강보험제도 실행 지원
11		공컨 (ADB)	파키스탄 (편자브주)	파키스탄 편자브주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관련 도시개발사업 설계 지원
12		양자	필리핀 (농업부)	필리핀 축산물 품질 관리를 위한 ICT 시스템 구축 방안
13		양자	ASEAN (사무국)	ASEAN 회원국의 지적재산권 인프라 강화 방안
14	아프리카	양자	나이지리아 (증권감독위원회)	나이지리아 파생금융상품 시장 구축 및 운영 방안
15		공컨 (WB)	르완다 (환경부)	르완다 공간정보 인프라 및 토지 이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원
16		양자	에티오피아 (재무부)	에티오피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공재정 관리 개선 방안
17		양자	우간다 (캄팔라시)	우간다 캄팔라시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방안
18		양자	케냐 (콘자개발청)	케냐 콘자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방안
19		양자	탄자니아 (전자정부청)	탄자니아 전자정부 연구개발 및 혁신 지원 방안
20	중남미	양자	니카라과 (교육부)	니카라과 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한 종합전략 수립
21		양자	도미니카공화국 (전파통신위원회)	도미니카공화국 차세대 방송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차세대 방송 스펙트럼 플랜 개발
22		공컨 (IDB)	도미니카공화국 (국영송전회사)	도미니카공화국 PPP를 활용한 도서 지역 브로드밴드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 전략 수립
23		양자	멕시코 (국립과학기술원)	멕시코 국립과학기술원의 과학기술 전략 수립 지원 방안

	지역	유형	협력국 (협력부처)	사업명
24	중남미	양자	볼리비아 (에너지부)	볼리비아 각·오지 하이브리드 전력 시스템 구축 방안
25		공컨 (IDB)	볼리비아 (국영수도회사)	볼리비아 국영수도회사 경영 효율화 및 체계적 수자원 관리 계획 수립
26		양자	브라질 (경제부)	브라질 IT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컨설팅
27		공컨 (IDB)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정부 데이터센터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28		공컨 (IDB)	에콰도르 (교통공사사업부)	에콰도르 교통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29		양자	온두라스 (금융보험위원회)	온두라스 신용보증 시스템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
30		양자	쿠바 (산업부)	쿠바 패키징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 및 이행 지원
31		양자	파라과이 (도시주택부)	파라과이 국토·도시 부문 발전을 위한 국책 연구기관 설립 방안 연구
32		양자	페루 (통상관광부)	페루 물류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정책자문
33		공컨 (OECD)	페루 (수자원청)	페루 리막강 유역 수해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34		중동·북아프리카	공컨 (EBRD)	요르단 (조달청)
35	양자		이란 (법무부)	이란 지적권(IP)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36	양자		이집트 (중앙은행)	이집트 소액 결제 시스템 개선을 통한 금융 거래 활성화 방안
37	공컨 (ITC)		튀니지 (공공조달상급위원회)	튀니지 공공조달 서비스 활성화
38	중앙아시아 유럽	양자	루마니아 (경제통상환경부)	루마니아 생산성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수립을 한 정책 수립 지원
39		양자	벨라루스 (경제부)	벨라루스 국가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실행 전략 수립
40		양자	불가리아 (소피아테크파크)	불가리아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방안
41		양자	세르비아 (정보통신전자정부실)	세르비아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42		양자	아제르바이잔 (금융시장감독원)	아제르바이잔 자본 및 파생상품 시장 운영 및 규제 방안
43		양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대중교통 발전 전략 수립 지원
44		양자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우즈베키스탄 국립의료복합단지 설립 방안 연구
45		양자	우즈베키스탄 (안그렌자유경제구역청)	우즈베키스탄 안그렌 경제특구 운영 지원 방안
46		기타 (다국가)	공컨 (WB)	세네갈 / 알바니아 / 코소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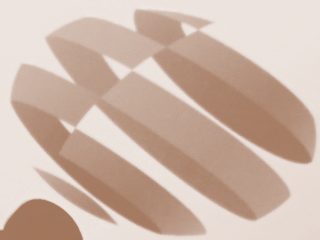
2018/19년 KSP

사업 목록

# PROJECT PROPOSAL FOR KNOWLEDGE SHARING PROGRAM

Knowledge  
Sharing  
Program

Programme de Partage des Connaissances



2) Policy-Orig...  
The overa...  
achieve t...  
therefore...  
countries

3) Partici...  
Private...  
joint r...  
gover

4) Inter...  
The pro...  
con

C. KSP f...  
share...  
Econ...  
Pror...  
Infe...  
and

As a comprehensive...  
experiences with the...  
However, KSP's intent is...  
development issues. Instead, the...  
country from the demand-side per...  
and references based on similar cases...  
development consultation, human and ins...  
been conducted for 606 research topics in 46...  
countries.

## Objectives

- A. The objectives
- 1) Seek p...  
policy is...  
theory-ba...
  - 2)

## 부록 - KSP 주요 성과

정책컨설팅사업의 특성상 제안한 정책을 실현하고, 그로 인한 변화(성과)가 생기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부처 간 조정을 통해 자문 내용을 정책에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고, 법률을 제정하거나 후속 사업의 재원을 조달하는 등의 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KSP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협력국의 정책변화 및 국내외 후속 협력 여부 등 사업 목표의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후속 사업 연계를 지원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2018-2019년에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구체적 성과를 확인한 3개 사업을 소개한다.



# 미얀마

## 한 -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설립

### [KSP]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 방안’ 정책자문(2014)

### [성과]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사업 (2019-2024년, 1,311억원)

미얀마는 2011년 민간 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 발전을 위한 산업화 전략에 따라 해외 자본 투자와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경제 특구 및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했다. 2013년 6월 개최된 제1차 한-미얀마 경제협력 공동위원회 당시 미얀마 정부의 제안에 따라 한국의 산업단지 조성 경험을 공유하고, 한-미얀마 산업단지를 공동 개발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양국 간 교역을 확대하고 한국 기업의 미얀마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간 협력사업으로, KSP를 통해 한국의 산업단지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종합적 조성 방안을 수립하며, 이후 EDCF 연계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었다.

KSP는 양국 간 경제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이후 산업단지 조성 및 주변 지역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에는 양곤 남서부권의 지역 발전 전략을, 2014년에는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미얀마 건설부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특히, 2014년에는 제안한 정책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켰다. 미얀마 건설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시 여러 후보지 중 야웅니핀 지역의 산업단지 입지 여건을 검토했으며, KSP를 통해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대상지를 확정했다. 또 사업 시행 경쟁력을 갖춘 토지주택공사

(LH)가 KSP에 참여해 시행사 입장에서 산업단지 기본구상을 수립했다. 2015년 8월 KSP 정책자문이 완료되고, 2016년 1월 미얀마 내각이 LH가 제출한 사업의향서를 승인하면서 본 사업이 본격 추진되었다.

2017년 LH와 건설부가 경제협력 산업단지 합의각서(MOA)를 체결했으며, 2019년 8월 미얀마 건설부와 LH, 민간기업인 글로벌세아가 합작법인(JV)을 설립했다. 미얀마 건설부가 부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LH와 글로벌세아가 직접투자하는 방식이다. 또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로와 용수, 전력시설 등 주변 인프라를 정비하기 위한 EDCF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다.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을 계기로 기공식을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도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으로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강조했다. 산업단지는 2024년 분양 완료를 목표로 총 1,311억 원을 투입해 225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설립은 대상지의 개발 수요 및 여건 분석부터 산업단지 개발, 관리, 운영까지를 연계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사례라 평가할 수 있다. KSP는 정부 간 협정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상지를 확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변 지역의 개발전략을 점검함으로써 개발사업을 구체화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위험과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양국 간 투자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2024년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도 해외 건설 수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미얀마의 해외 투자 유치와 기술 이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호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미얀마는 그간 KSP를 통해 우리나라와 활발하게 협력해온 국가로, 2020년에 새롭게 도입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을 통해서도 전력·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얀마의 경제·산업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평가되는 전력 시설 등 인프라 개발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법·제도 정비, 사업 기획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양국 간 협력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LH-미얀마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합작 계약 체결(2019. 8. 7)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2019. 9. 4)



미얀마 경험산단 조감도(2024년 완공예정)



#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아라비아 전략개발센터(CSD) 설립

**[KSP]**  
‘사우디아라비아 싱크탱크 설립방안’ 정책자문(2012, 2013)

**[성과]**  
전략개발센터(Center for Strategic Development) 설립(2016)

사우디아라비아 KSP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온 전통적 ODA와 달리 주요 교역국이자 전략적 협력국과의 경제협력 모델로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진행되었다. 주된 파트너인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기획부(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는 1970년대부터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총괄 조정해온 부처로서, 한국 발전 경험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유 수입 등 국부를 활용해 경제사회 발전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관심이 높았다. 이러한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 KSP는 경제개발 또는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경제기획부는 종합정책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수의 정책연구를 국제기구 및 글로벌 컨설팅업체와의 용역 방식에 의존해오면서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KSP 연구진은 2012년과 2013년에 KDI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경제정책 연구소 설립을 제안했다. 당시 KSP 사업에 참여하고, 이후 연구소 설립을 추진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과학기술 분야 이외에 경제사회 분야의 연구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내각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KSP 정책자문 보고서와 한국의 발전 사례는 사회과학 분야 연구기관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그에 필요한 법률을 발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2016년 6월에 제정된 법률에 근거해 경제기획부 산하에 전략개발센터(Center for Strategic Development, CSD)가 설립됐으며, 6개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독자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유일의 종합 정책연구기관이 설립된 것이다. 2019년에는 장관급 인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전략개발센터의 지위가 격상되었다. 주요 정책연구 방향은 설립 취지와 최근의 정책 환경을 고려해 ①국가 개발전략, ②국제경쟁력, ③사회개발 및 복지, ④노동시장과 인적자원개발, ⑤천연자원 및 환경(기후변화)으로 제시했으며, 최근에는 특히 산업 육성(중소기업 및 전자상거래 등), 노동시장 개혁, 교육 분야의 연구 과제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19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해외 컨설팅업체와의 계약을 제한하는 칙령(Royal Decree)을 발표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외국 컨설팅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이 상당한 만큼 해당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자국에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해외 전문가의 컨설팅을 인정한다는 입장이었다.

가급적 자국 기업과 전문가의 자문 서비스를 받아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최근의 방향성과 2016년 4월에 발표한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사회 분야 정책연구 수요를 고려할 때 앞으로 전략개발센터는 보다 폭넓은 역할과 높은 수준의 연구 역량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한다.

양국은 무함마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2019년 6월에 사우디아라비아 전략개발센터와 KDI 간 지속적인 연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파트너십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한-사우디, 한국개발연구원과 전략개발센터 간 연구협력을 위한 협력각서 교환(2019. 6. 26)



# 카자흐스탄

## 정부의 주택보증제도 도입과 법률 개정

**[KSP]**  
‘주택건설사업 정부보증제도 도입·운영 방안’ 정책자문(2016)

**[성과]**  
주택보증요율 시행령 개정(2017)

국제사회는 반세기 만에 이룬 한국의 고도성장과 산업화, 디지털·반도체 등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한 성공 요인뿐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한 정책 실패와 위기 극복 경험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유사한 시행착오를 피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때 필요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1990년대 초 주택건설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보증제도 등을 도입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체가 연쇄 도산하고 보증제도를 부실 운영해 손실이 급증했던 경험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즈음해 카자흐스탄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했다.

카자흐스탄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건설업체의 도산과 프로젝트 중단으로 분양 대금을 미리 납부한 소비자와 건설업체가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 정부보증제도의 신뢰도 하락과 주택건설시장 위축, 손해배상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했다.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국내 건설 기업 동일하이빌은 2013년 현지 주택 시장의 비효율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한국 주택보증제도 사례와 카자흐스탄의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을 지역개발부 장관에게 직접 소개했다.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이 한국의 정책 경험을 협력국과 공유하고 정책도입을 자문한 셈이다.

이를 계기로 카자흐스탄 정부는 한국 사례에 기초한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했으며, 2014년 6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舊 대한주택보증)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유사한 방식의 정책 모델로서 한국과 영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한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2016년 4월 주택보증제도에 관한 법률(“주택건설에 대한 지분참여법”)을 제정했다. 이어서 카자흐스탄 정부가 KSP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016년에 정부보증제도의 도입과 운영 방안에 대한 정책자문사업을 시작했다.

2016/17 KSP를 통해 카자흐스탄의 정부보증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 과제를 점검했다. 주택보증요율을 높게 책정함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민간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위험 요인을 확인했으며,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와 보증 심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보증기관의 사업 관리 체계 개선 등의 과제도 확인했다.

요컨대 주택보증제도 이외에 주택 건설, 공급, 소비자 금융, 신용평가 등 연관 분야의 법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KSP 정책자문 보고서를 활용해 유관 부처 간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우선 과제로 2017년 8월 주택보증요율 시행령을 개정해 요율을 인하했다. 2019년 9월 확인 결과, 관련 법이 발효된 이후 2020년까지 보급되는 주택의 약 23%가 주택보증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택시장의 공급을 회복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제도의 취지가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흥국 등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대상국의 제도적·환경적 기반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자본과 기술을 유치해 경제성장을 꾀하는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도,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라도 진입 장벽을 해소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카자흐스탄의 주택보증제도 도입과 관련 법률 개정 사례는 정책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KSP의 역할과 의의를 되짚어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양국은 2019/20년도 KSP를 통해서도 앞선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주택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HUG-카자흐스탄 국영회사, 주택보증업무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8. 5. 29)



HUG, 카자흐스탄 주택건설 부지 방문(2018. 6. 1)





